



전북농협, 2026년 제2차 전북축협운영협의회 개최

전북농협(본부장 김성훈)은 지난 10일 NH참여조합공법인 3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2차 전북축협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차기 전북축협운영협의회장 선출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축산 관련 기관장들의 신년 인사가 이어졌으며,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강화 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아울러 △2026년 축산경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농협법 개정 관련 진행 경과 △한우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대응 △2026년 축종별 수급 동향 등 축산업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축산농가 실익 증대와 전북 축협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축산과로부터 2026년 축산분야 현안 자료와 춘과 조사로 파종면적 확대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동물방역과로부터는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 계획을 청취했다. /오상근 기자



지역과 함께 이어온 농협, 나눔 성금 1000만원 기탁

김제시는 11일 농협 김제시지부(본부장 강대연)와 김제시농·축협운영협의회(회장 최순운)가 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복지시설 위한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농협 김제시지부와 김제시농·축협운영협의회는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한 협력은 물론,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에도 꾸준히 동참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해 오고 있다. 그동안 성금 기탁과 함께 백미 1,000포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이어오며,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향한 관심과 나눔을 지속해 지역사회에 신뢰를 더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보건소, '건강더하기 재활교실' 참여자 모집

김제시보건소는 관내 장애인의 신체기능 향상과 건강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운영되는 '건강 더하기 재활교실' 참여자를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건강 더하기 재활교실'은 오는 3월 17일부터 6월 2일까지 김제시치매안심센터에서 주 2회, 총 22회 운영되며, 재활운동 등 중심으로 원예, 공예, 요리, 레크리에이션, 아로마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통합 재활 프로그램이다.

관내 장애인 15명 대상 진행되며, 신규 참여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 문의는 김제시보건소 치매재활과 재활보건팀(☎ 063-540-3108)으로 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시, 식용 곤충 활용 레시피 공모전 성료

원광대 한약학과 허린·조민준 학생, '밀웬 한입 강정' 대상 수상 영예

남원시와 원광대학교 RISE 사업단은 미래 식량 자원으로 주목받는 식용 곤충에 대한 인식 전환과 활용 가능성 확대를 위해 개최한 '2026 식용 곤충 활용 레시피 공모전'을 지난 2월 4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RISE)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식용 곤충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상용화할 수 있는 레시피 발굴을 목표로 마련됐다.

지난 1월 1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접수에는 총 36개 팀이 참가했으며, 이 가운데 9개 팀이 결선에 진출, 영예의 대상(원광대학교 총장상)은 원광대학교 한약학과 재학생 허린, 조민준 씨로 구성된 '웬에 맞나네' 팀의 '밀웬 한입 강정'이 차지했다.

대상작인 '밀웬 한입 강정'은 건조 밀웬(고소애) 특유의 고소한 풍미와 바삭한 식감을 전통 간식인 강정에 자연스럽게 접목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약학 전공의 특성을 살려 재료의 물성을 분석하고, 산수유, 용안육, 쌍화진액 등 한약재와 밀웬의 영양적 조화를 시도해 독창성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심사위원단은 "강정을 새로운 식재료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적 틀로 해석하고, 밀웬을 활용해 서로 다른 인상을 주는 4가지 유형의 강정을 구상한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식용 곤충을 낯선 재료가 아닌 음식의 질감과 풍미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풀어내 누구나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는 메뉴를 제시했다"고 평했다.



도한 △최우수상은 송명여대 이예진 팀의 '비일(味日)월 김 과자' △우수상은 연세대 감지윤 팀의 '고소애 구겔호프' △장려상은 울산대 이정현·이유린 팀의 '고소애 비스크 뇨끼'가 각각 선정, 수상팀에는 상장과 함께 총 37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었으며 △밀웬주악(밀웬시대 팀) △육바새우 멘보샤(MSM 팀) △홍감자(웬리어답터 팀) △밀따뜻(warm)떡갈비(with us 팀) △고소구마 치즈 케이크(고소멜로우 팀) 등 5개 팀이 입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 레시피들은 식용 곤충산업 관심 제고와 활용 확산을 위해 추후 책자로 제작돼 관련 대학 및 특성화고 등에 배포 예정이며, PDF 파일과 영상 자료는 원광대 RISE 사업단 홈페이지(<https://rise.wku.ac.kr>)를 통해 공개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농협, 제53기 결산총회 개최

김제농협은 2026년 2월 10일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제53기 결산총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결산 승인과 함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김제농협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경영성과 보고와 임여금 처분안 승인, 상임이사 선출 등 주요 일정이 진행됐다.

김제농협은 어려운 대내외의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상호금융 자산 8천억 원을 돌파했으며, 연체율 0.62%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자산 건전성을 바탕으로 '클린뱅크 금메달'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5년도 당기순이익은 29억9,500만원을 기록하며, 내실 있는 경영 성과를 이어갔다. 이번 결산을 통해 김제농협은 조합원 출자배당 5.14%를 결정했으며, 출자배당금 10억5,000만원과 함께 농협 사업을 적극 이용한 조합원 및 준조합원 이용배당 8억4,500만원, 사업준비금 7억5,900만원을 편성했다. 또한 2025년도에는 교육지원사업비로



총 22억9,400만원을 집행하며, 조합원 영농 지원과 복지 증진, 각종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조합원 삶의 향상에 힘써왔다.

이날 총회에서는 우수농협회장을 비롯, 농협 사업 이용 실적이 우수 조합원들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되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농협 사업 참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진행된 임원 선출에서는 정영환 상임이사가 선출되어, 앞으로 김제농협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 추진을 이끌게 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산림조합, 창사 이래 첫 금융부문 '대상' 수상

정읍산림조합(조합장 최봉관)은 2025년 하반기 산림조합 중앙회가 실시한 '산림조합 금융업적평가'에서 금융부문 대상(전국 1위)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이는 정읍산림조합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거둔 금융부문 대상 수상으로, 지역 산림금융 역사에 뜻깊은 이정표가 되고 있다.

정읍산림조합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연체를 개선, 안정적인 여·수신 성장, 수익성 중심의 내실 경영을 통해 모든 평가 항목에서 고른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최고점으로 대상에 선정됐다.

특히 정읍산림조합은 그동안 조합원과 지역민을 위한 책임 있는 금융 운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금융 서비스 강화와 건전성 위주의 경영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이 이번 평가에서 객관적인 성과로 입증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산림조합, 경영성과 최우수상 상호금융성장대상

부안군산림조합(조합장 오세준)은 산림조합 중앙회로부터 우수한 내실 경영과 금융 사업의 성장을 인정받아 '2025년도 경영성과 최우수상'과 '상호금융 성장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11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6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9억여 원의 수익으로 출자배당 4.7%와 상호금융 이용 조합원들께는 이용고배당 20% 최고의 배당을 하도록 의결했다.

오세준 조합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조합원 및 군민들께서 관심과 사랑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며 "2026년도에는 더욱더 고수익의 실적을 올려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양지사 010-96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심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전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6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83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4172-3800
	익산지사 659-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남원소방서, 설 맞아 성일유엔아이에 생필품 등 전달

남원소방서는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성일유엔아이'에 생필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문은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아 자칫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과 따뜻한 명절의 정을 함께 나누고, 공직사회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 이날 전달된 물품은 남원소방서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으로 마련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소방서는 시설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화장지, 삼푸 등 필수 생필품을 준비해 전달하며 입소자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